

[특집] 국어 교육의 지평 확대를 위하여

자발성·다양성·공익성에 기초한 독서 교육을 지향하며

— 독서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소년기의 국어 교육 방향

조영수 창문여자중학교 교사

1. 요즘 독서 지도의 실태

1.1. 과거와 다른 독서 지도 환경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도서관에 찾아갔던 적이 있다. 문학을 지도하신 선생님께서 도서관을 담당하신 것으로 기억난다. 그 선생님께서 나를 도서관으로 안내해 주셨다. 도서관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그 자물쇠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여는 순간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확 밀려왔다. 교실 한 칸 크기도 되지 않은 공간에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매우 낡은 책들이었다.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곳이었다. 그래도 학교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 자체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어렵듯이 난다. 지금까지 내가 책과 인연을 맺고 있는 것도 책을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는 내 기질 때문일지 모르겠다.

그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시설이 아주 좋은 도서관이 있다. 우리 도서관에는 1만 5,000권이 넘는 책이 있다. 게다가 멀티미디어 환경

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컴퓨터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다. 학생들은 이 컴퓨터를 활용하여 도서를 검색하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편의 시설도 있다. 카페에서나 볼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도서관에 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담소를 나눌 수 있다. 쌀쌀한 날씨에 따뜻하게 책을 읽으라고 온돌 시설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편안하게 엮드려서 책을 읽을 수 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라 할 만큼 학교 도서관이 달라졌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독서를 지도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갖춘 학교들이 이제는 꽤 많다.¹⁾ 그리고 독서 지도에 대한 교사 연수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가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독서 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 입시에서도 논술과 면접이 강조되면서 독서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업에서도 독서 경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책 읽기를 강조하기도 한다. 자기 계발 관련 서적을 살펴보면 독서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독서 방법뿐만 아니라 책을 쓰는 방법까지 설명하는 책도 많아졌다. 그만큼 독서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이다.

1.2. 당위성만 강조하는 그릇된 독서 지도

서울시가 분석한 ‘2013년 독서 실태 및 공공 도서관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민의 연간 독서량은 11.96권으로, 지난 2008

1) 여전히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지역도 있다. 앞으로도 독서 소외 계층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정기적으로 대형 버스를 활용한 이동식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는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 시설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년보다 7.52권 줄었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시민이 많다는 얘
기다. 그리고 공공 도서관 이용 실태 조사에서 ‘최근 1년간 도서관을 이용
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73.8%가 ‘비이용’으로 응답했다.²⁾ 점점 책
을 읽는 문화가 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비슷하다. 많은 책과 좋은 시설을 갖춘 도서관은 있는데,
학생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다. 나는 올해 중학교 1학년을 지도하는데,
한 반에서 책을 열심히 읽는 학생을 손에 꼽을 정도다. 참으로 역설적
인 상황이다.

학교에서 독서 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대학
입시라는 큰 걸림돌 때문에 학생들은 책을 읽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
족하다고 느낀다. 독서와 공부는 별개라는 인식이 여전히 퍼져 있어서
학생들은 책 읽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영상이나
음악 등 청소년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매체가 우리 주변에 많은 것도
문제다. 책을 읽기보다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기 위해 이
어폰을 찾는 것이 요즘 학생들이다. 게다가 정보 기술(IT) 강국답게 인
터넷이 잘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휴대전화만 있으면
혼자 놀 수 있다. 독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을 멀리한다면 책 읽기가 싫어질 수밖에 없다.³⁾

학교 안팎으로 책을 읽는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서 학교에서 독

2) <서울 문화 시민, 책 덮었다…독서량 5년 새 7권 이상 감소>, 헤럴드경제 인터넷판, 2014
년 3월 19일 자, 앞의 자료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람.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40319000249>

3) 독서 장애 요인으로 학생은 ‘책 읽기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아서(24.9%)’, ‘학교나 학원 때
문에 시간이 없어서(21.7%)’,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 이용으로 시간이 없어서(18.2%)’
등을 꼽았다. (재)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2011년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
관광부, 요약문 4쪽.

서를 지도하기란 무척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책을 무조건 읽어야 한다는 당위적인 가르침만 있으면 독서 지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예를 들어 논술 시험과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목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책을 읽을 때가 있다. 읽기와 쓰기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무작정 독후감을 쓰기도 한다. 스스로 독서에 재미를 붙이고, 책을 읽고 난 느낌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하는데,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으로 독서 지도가 이루어지는 셈이다.

지난 4월에 모 방송국에서 편성하려던 ‘어린이 독서왕’ 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다. ‘어린이 독서왕’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왕을 뽑을 의도로 편성한 프로그램이다. 우선 책 40권을 선정하여 예선과 본선 시험을 치른다. 그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독서 골든벨 대회에 참여해서 실력을 겨루게 된다. 즐겁게 책을 읽는 방법으로 창안된 독서 골든벨 방식을 독서 교육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책의 내용을 주로 묻는 간단한 퀴즈 문제로 시험을 치르면서 학교 간 경쟁을 부추킨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아마 학생들은 선정된 40권의 책만 집중해서 읽을 것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책을 선택하여 읽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책을 즐겁게 읽게 하려는 원래의 의도는 사라지고, 오히려 학생들이 책을 멀리하는 결과를 낳는다.

선정 도서 40권은 이미 시중에서 팔렸는데, 표지에는 ‘어린이 독서왕’ 스티커를 붙였다고 한다. 각 책은 ‘독서 지도안과 출제 예상 문제’를 부록으로 붙여 기존에 나온 책과 다른 형태였다고 한다.⁴⁾ 기존의

4) <KBS ‘어린이 독서왕’ 반교육성 논란>,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13년 4월 9일 자, 앞의

형식과 조금 다르게 책을 새롭게 출간했다는 것은 선정 도서라는 명목 아래 책을 팔려는 출판사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독서가 상품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하겠다.

2. 독서 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법

청소년기는 몸과 마음이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책은 청소년에게 훌륭한 조연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삶의 방향까지 결정해 주기도 한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청소년 시기에 읽은 책 한 권이 자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기의 독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독서 교육은 책을 꼭 읽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많이 강조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시험과 경쟁을 위해 강제로 책을 읽을 때가 많았다. 그리고 학생의 수준과 상황,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똑같은 책을, 똑같은 방식으로 읽게 하기 마련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책을 상품처럼 팔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책을 읽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책 읽기를 지도해야 한다. 자발성, 다양성, 공익성이 바로 독서 교육이 지향해야 할 지점이다.

자료는 다음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람.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582050.html>

2.1. 자발성: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

독서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학생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나 가정에서, 또는 사회 교육 기관을 통해서 책을 읽는 방법을 다양하게 익혀 왔음에도 학생들은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책보다 재미있는 것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독서 동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⁵⁾

게다가 청소년 시기에 독서 동기가 떨어지는 현상은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독서 동기 관련 요인 중 하나로 읽기 효능감(reading self-efficacy)이 있다. 읽기 효능감은 읽기와 관련된 학생의 자기 판단이며, 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의 신념이나 기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읽기 효능감은 학년이 낮을수록 높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학교생활을 거치면서 학생들의 읽기 효능감이 떨어지고, 이는 결국 독서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독서 동기를 감소시킨다.⁶⁾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독서 교육에서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스스로 책을 읽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로 독서 교육의 시작이다. 그리고 일정한 동기를 부여하면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특성을 봤을 때도 동기 유발 방법은 매우 중요하다.

5) 이경화 외(2007), 《교과 독서와 세상 읽기》, 박이정, 121쪽.

6) 이경화 외(2007), 《교과 독서와 세상 읽기》, 박이정, 123쪽.

2.1.1. 좋은 책을 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동기 유발 방법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만화책을 많이 읽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귀퉁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가득 쌓아 놓고 읽던 기억이 난다. 나는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만화책을 읽기 위해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책을 만나면, 그때부터 독서 지도가 쉽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입맛에 잘 맞는 책이란 무엇일까? 세상에는 좋은 책이 많다. 즉 ‘양서(良書)’가 많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양서(良書)’만 권한다면 독서 지도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워 주는 고전 작품을 모아 학생에게 권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책은 훌륭한데, 학생들은 그 책을 잘 소화하지 못한다. 그래서 학생의 독서 수준, 정서, 문화 등을 고려하여 책을 추천해야 한다. 말하자면 ‘양서(良書)’이면서 ‘적서(適書)’인 책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단체에서 제공하는 추천 도서 목록은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좋은 자료가 된다. 다만 이런 추천 도서 목록만 전적으로 신봉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학교마다 학생의 독서 수준, 정서,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추천 도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청소년 추천 도서 선정 기준 및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2005), 《책따세와 함께 하는 독서교육 추천 도서 목록 만들고 활용하기》, 청어람미디어. 이 책에서는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 선정 기준을 충실성, 가독성, 진술성, 대표성, 확장성, 복합성으로 정하고 있다.

-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을 찾아볼 수 있는 곳
 -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http://www.readread.or.kr>)
 - 어린이도서연구회(<http://www.childbook.org>)
 - 아침독서운동(<http://www.morningreading.org>)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http://www.kpipa.or.kr>)

2.1.2. 간단한 활동과 함께 책 소개하기

나는 군 복무 시절에 짬짬이 책을 읽었다. 내가 읽은 책에서 기억에 남는 구절을 공책에 베껴 썼다. 그때 적었던 내용이 공책 한 권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가끔씩 그때 읽었던 구절을 볼 때가 있다. 지금도 베껴 쓰는 습관이 남아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인용하기 좋은 구절, 깊은 감동을 준 부분이 나오면 컴퓨터로 정리할 때가 많다.

이렇게 책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유용한 수업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책 내용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한 퀴즈를 만들 수 있다.

1. () 안에 알맞은 숫자는?

케빈 베이컨 게임: ()다리만 건너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아는 사이이다.

2. 다음 내용은 참일까, 거짓일까?

- 1) 진시황이 북방 흉노족을 막기 위해 건설했다는 만리장성은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인공건축물이다.
- 2)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뇌의 10%도 채 못 쓰고 죽는다.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뇌를 15%밖에 못 쓰고 죽었다.
- 3) 정상인의 심장 박동 간격은 환자보다 훨씬 더 불규칙적이다.

출처: 정재승(2011),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어크로스.

학생들과 함께 퀴즈를 풀다 보면 책에 대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책을 소개할 때 퀴즈처럼 간단한 활동을 함께한다면 책을 추천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 내가 가르치는 여중생들은 과학 분야에 관심이 없는 편인데, 이 방법을 활용하여 책을 추천했더니 책을 찾아볼 때가 많았다. 학생들이 잘 읽지 않는 분야의 책을 소개할 때도 유용한 방법이겠다.

2.1.3. 학생들이 모르는 책의 세계로 안내하기

책 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그래서 학생들이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책의 세계를 보여 주거나 책을 읽는 것이 매우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뜻이다. 거창하게 말하면 학생들을 책의 세계로 인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미지의 책의 세계로 안내하는 데에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는 주로 수업 시간에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자주 끄집어낸다. 학생들도 알 만한 필자가 쓴 독서 칼럼을 소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독서 실태를 보여 주는 통계자료를 제시할 때도 있다.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여 주면서 요즘 책의 경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출판사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귀동냥으로 들은 이야기도 가끔씩 한다. 책의 날 행사, 국제 도서전 등 책과 관련된 행사를 소개할 때도 있다.

또한 독서를 주제로 한 영상 자료를 보여 주면서 독서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주로 책 읽기가 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보여 주는 영상을 시청한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이듯이 교사의 말보다 직접 보는 것이 교육적 효과가 클 때가 있다. 특히 시청각 자료에 익숙한 학생에게 독서 관련 영상을 적절히 편집해 보여 주면 동기 유발에도 큰 효과가 있다.⁸⁾

-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활용할 만한 영상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앞쪽 뇌의 비밀
 - SBS 특집 다큐멘터리 <이야기의 재발견>
 - KBS <책 읽는 대한민국, 읽기 혁명> 2부작
 - 제1편: 한 살 아기에게 책을 읽혀라, 제2편: 읽지 못하는 시대
 - KBS <과학카페> 리딩사이언스

2.2. 다양성: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해야 한다

내가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의 독후 활동은 독후감 쓰기만 있었다. 책을 읽고 나서 200자 원고지에 정해진 분량만큼 쓰는 것이 독후 활동의 전부였다. 내가 교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도 크게 변함이 없었다. 여전히 학생들은 독후감을 열심히 썼다.

그러다가 독서 지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각종 독서 지도 연수가 실시되면서 다양한 독서 지도 방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 책을 읽고 난 느낌과 생각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요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중 하나는 창의성이다.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바로 다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한다면 참신한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독서 지도가 필요하다.

8) 책 관련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 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수업 시간 내내 영상만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능과 오락 프로그램에 익숙한 학생들이 다큐멘터리 성격이 강한 독서 관련 영상을 잘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가 적절하게 영상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틈틈이 생각할 문제를 던져 주거나 영상을 시청한 후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수업 방법이라 생각한다.

2.2.1. 책을 읽고 난 느낌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기

요즘 청소년들은 인쇄 매체보다 영상 매체를 선호한다. 청소년들의 이런 특성을 잘 살린다면 보다 효과적인 독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책을 읽고 나서 독후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각자 책을 읽고 난 느낌을 5분 안팎으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책과 어울리는 사진 몇 장을 보여 줘도 되고, 책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해도 된다. 책의 내용을 잘 표현하는 음악을 들려줘도 되고, 새롭게 책의 표지를 만들어 보여 줘도 된다. 책에서 본 내용을 직접 시연하거나 친구들과 함께 연극으로 꾸며 볼 수도 있다.⁹⁾

이렇게 학생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표현한다면 학생들은 책의 내용을 보다 창의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재주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줄 수도 있다.

2.2.2. 국어 활동 영역(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통합적으로 지도하기

독서와 쓰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활동이 독서라면, 이 과정을 거꾸로 되짚어가면 곧 쓰기가 된다. 그래서 독서 활동과 쓰기 활동을 분리해서 교육하기보다는 통합적인 수업 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토론 활동을 덧붙일 수 있다. 글을 읽는 과정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 과정과 같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는 상대

9) 독후 활동 발표를 위해서 교사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 학생들의 발표 사례를 풍부하게 보여 주는 것만으로 창의적인 발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방을 설득하는 말하기와 통한다. 그래서 독서와 토론의 만남은 자연스럽다. 학생들은 토론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 권의 책을 꼼꼼하게 읽고, 토론을 통해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이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쓰는 수업 모형을 구상할 수 있다. 이는 국어 활동의 전 영역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수업 방법이다.

[표 1]은 소설로 읽기(독서), 말하기(토론), 쓰기 활동을 통합한 수업 모형의 예이다.

[표 1] 읽기(독서), 말하기(토론), 쓰기 활동을 통합한 수업 모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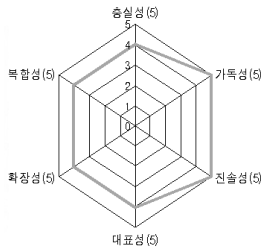
차시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수업 방법
1차시	책 권해 주기 메모하며 읽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 추천하기 • 메모하며 읽기의 필요성과 그 방법 (책을 읽을 시간 학생에게 제시) 	교사 강의
2차시	좋은 질문 만들기 독서 퀴즈 문제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의 유형과 좋은 질문의 조건 • 독서 퀴즈 문제 만들기 • 친구의 퀴즈 문제에 의견(댓글) 달기 • 자신이 낸 문제 중 베스트 문제 뽑기 	교사 강의 학생 활동
3차시 4차시	참여식 토론 방법 ¹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의 원리와 토론할 때 유의할 점 • 모서리 토론 방법 	학생 활동
5차시	소설의 내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의 내용 파악 •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 • 소설의 결말, 주제 파악 	학생 활동
6차시	PREP 글쓰기 기법 ¹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 • 한 문단 쓰기 • 독후감 쓰기의 기초 단계 	학생 활동
7차시	책 평가하기와 교사의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능력치¹²⁾로 평가하기 • 소설에 대한 교사의 해석 	교사 강의 학생 활동

2.3. 공익성: 독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란 말이 있다. 냉철한 지성으로 대상을 분석하고, 따뜻한 감성으로 남을 배려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학생이 책을 읽으면서 뛰어난 지성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간미를 갖기 원한다. 과거에는 독서가 교양을 쌓고 인격을 수양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학생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는 삶을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책 읽기와 봉사 활동을 연계해 볼 수 있다. 요즘 재능 기부 형식의 봉사 활동이 많은데, 학교 교육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포스터를 제작하도록 한다. 컴퓨터 그래픽에 소질이 있는 학생에게 신간 정보를

- 10) 참여식 토론 방법이란 학급의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 방법을 말한다.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만한 다양한 토론 방법은 다음 책을 참고할 수 있다. 유동길(2012), 《토론의 전사 1, 2》, 해냄에듀.
- 11) 실용적 글쓰기 방법 중 하나다. ‘주장(중심 내용)-이유나 근거-구체적인 사례-주장(중심 내용) 재강조’로 글을 쓰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 임재춘(2005), 《한국의 직장인은 글쓰기가 두렵다》, 북코리아.
- 12) ‘책 능력차란 그림처럼 일정한 기준으로 책의 가치를 점수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좋은 책의 기준을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http://www.readread.or.kr>)’에서는 책 능력치를 활용하여 청소년 추천 도서 목록을 누리집에 발표하고 있다.



알리는 예쁜 게시물을 만들도록 한다. 영상 편집에 재주가 있는 학생에게 독서 유시시(UCC, 손수제작물)를 제작하여 학교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활동 모두 독서 캠페인 봉사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학교 바깥에서도 이런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부모가 잘 돌봐 주지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읽어 주는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책을 읽고 연극 대본을 작성하고, 보육원생처럼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해 연극을 공연할 수도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하면서 나눔을 실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내가 활동하고 있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이하 책/따/세)’¹³⁾은 몇 년 전부터 독서와 봉사 활동을 연계한 독서 자원봉사 활동을 여름방학마다 개최하고 있다. 2014년 여름에는 인권 도서를 함께 읽고 토론한 후 학생들이 인권 유시시(UCC, 손수제작물)를 제작했다. 제작한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¹⁴⁾ 학생들이 저작권을 기부했으므로 자유롭게 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책/따/세에서는 저작권 기부 사이트(<http://www.copygift.or.kr>)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책을 읽고 난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서 저작물을 만든다. 이때 저작물은 그림, 사진, 글, 영상 등 컴퓨터 파일 형식만 유지하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이런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것이다. 현재 1,000건이 넘는

13)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은 청소년 전용 도서관인 ‘푸른도서관’을 알차게 꾸려 보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독서 교육 문화 단체다. 책/따/세는 바람직한 청소년 독서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1998년 이래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분이라면 책/따/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4) 유튜브 책따세 채널 중 제5회 청소년 독서자원봉사학교 제작 영상, 앞의 자료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람.

<http://www.youtube.com/channel/UC6at0JgEOikcvHwKv0YUxKA>

기증물을 해당 누리집에서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⁵⁾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미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서와 봉사활동과 연계하는 것은 공익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목적과 부합한다.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독서와 봉사를 연계하는 지도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올바른 독서 문화 형성에 교육 주체의 역할 중요

앞에서 나는 독서 교육의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그 원칙은 바로 자발성, 다양성, 공익성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이 스스로 책을 읽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과 어긋나게 독서 지도를 한다면 독서가 입시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독서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고, 책을 읽으면서 소중한 꿈을 키우는 학생의 모습을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할 것이다.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¹⁶⁾ 결과 2011년에 비해 학생의 연평균 독서율(지난 1년간 일반 도서를 1권이라도 읽은 사람의 비율)이 12.2% 증

15)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람.

<http://ncic.re.kr/nation.kri.org4.inventoryList.do>

16) 2013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람.

http://www.me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308&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EB%8F%85%EC%84%9C

가하여 96%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독서 지도를 고민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연간 독서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 조사에서 눈여겨볼 결과가 또 있다. 가정과 학교의 독서 환경 조성 정도가 독서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책 읽어 주기, 독서 권장 등 독서 관심 정도가 현재의 독서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배경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또한 학교에서 정규 수업 전에 진행하는 ‘아침 독서 운동¹⁷⁾’이 독서 습관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 아침 독서 시간에 참여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독서량이 높게 나타났다.

우리는 이 조사 결과에서 교육 주체의 노력이 청소년의 독서량과 독서 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침 독서 운동’처럼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학생의 독서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독서 지도를 실천해 왔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청소년의 바람직한 독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교사다.

여기서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부모의 역할도 강조하고 싶다. 가정의 독서 환경이 학생의 독서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라는 조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학부모의 역할도 교사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독서 교육의 주체로서 당당히 설 때 청소년들이 스스로 책을 읽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17) 아침 독서 운동은 학교에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있는 아침 자습 시간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책을 읽자는 제안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사이트를 참고할 것.

<http://www.morningreading.org/whatmrch/>

그렇다면 교사와 학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독서 지도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어렵다. 바로 교사와 학부모가 먼저 책을 읽는 모습을 청소년에게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과 함께 책을 읽는 것이다. 나아가 꾸준히 책 읽기를 지속하는 것이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독서 문화가 형성될 것이고, 새로운 독서 지도의 방향도 열릴 것이라 믿는다.